

전자DS S직군

임원 면접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력서 기반이었습니다. 삼성은 사실 임원 압박, 직무 칭찬 조합이 합격루트이다 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요, 저는 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합격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 준비를 할 때 제 이력서를 보면서 주요 이력들에 대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면접에서 묻는 부분은 삼성전자이건 타 기업이건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빈출되는 문항들(장단점, 리더/팔로워, 도전경험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특히 나의 가치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방식 보다는 틈틈이 생각하며 정말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껏 어떻게 행동해왔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준비 많이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면접 몇 번 보다 보면 질문하는 부분이 뻔합니다. 저는 그런 빈출문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안될 뿐더러 면접은 결국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항목이고 신입 채용 면접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게 오히려 면접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고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도 조금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의 경우 보통 준비할때 자료구조 알고리즘 마스터! 운영체제 마스터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해당 과목들을 마스터하는건 힘듭니다. 단순히 전공 과목을 공부하자라는 마인드보다는 실제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이때 요구되는 전공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이 걸러지게 됩니다. DS부문 S직군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결국 삼성은 HW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운영체제나 컴퓨터구조와 같은 HW과목이 중요해집니다. DS부문 하면 메모리이니, 메모리 관련하여 RAID, FTL 같은 부분을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인터럽트 처리방법, 임베디드 관련한 메모리 구조... 등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그냥 기본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그냥 거르지않고 무조건 다 완벽히 숙지해야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야의 문제가 나와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었고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피드백이나 질문은 없는 채로 개인프로젝트 관련하여 직무 면접을 풀어갔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전자DS S직군

저는 임원-직무-창의 순서로 봤습니다.

일단 임원면접.

삼성전자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요 인턴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일 이야기하면서 풀어갔습니다.

단점 물어보셨을 때 솔직하게 처음 하는 일에 대해 두려움 갖는 편이다라고 했고 그럼 회사 가서 새로운 일 많이 맡을 텐데 어떡할 거냐고 하셔서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나 항상 잘하고 싶은 욕심이 더욱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냐 팔로우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팔로우라고 대답하였는데 임원분이 보통 회사 면접이면 잘보이려고라도 리더라고 대답하는데 팔로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셔서 회사는 모두가 팔로우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 아직 리더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회사 지원했냐는 물음엔 하.. 이때 ㅇㅇ 지금 합격한 상태라고 말을 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ππ

면접관분이 웃으면서 그럼 거기 가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아니라고 ππ

직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과의 기본 과목이 나왔고 세문제 다 잘 풀었습니다.

전자DS S직군

6시 50분 집합이었고, 8시 조금 넘어서 인성 CBT와 창의 CBT를 연속으로 봤습니다. 조금 대기 후, 인성 면접을 먼저 봤습니다.

1. 인성 면접

삼성 면접은 압박이 심하다는 후기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압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고 자기소개를 시키셨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몸이 좀 굳어있으니 긴장 풀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난 후, 가장 첫 질문은 학점이었습니다. 준비해간 대로 대답했지만, 그래도 학생이 가장 해야 할 일은 공부지 않냐고 물어보셨고,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받았던 질문들은 자소서 관련. 그리고 대외활동에 학생회 활동을 적었는데 학생회 활동에서 개인의 감정이 집단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땐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아 그럼 000씨는 이런 사람인가요? 라고 하셔서 좀 상황을 예를 들어가며 극단적인 사람을 비취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 지원인지도 물어보셨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3. 직무면접

저는 ds sw입니다. 3가지 문제는 알고리즘(스택,큐), 컴퓨터구조/운영체제(캐시), 컴퓨터구조/운영체제(인터럽트)였고 저는 2번 캐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꼬리문제 중 헛갈리는 개념 하나가 있었고, 들어가서 몇 번인지 말씀드리고 제가 3-1번 문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풀어봤고 혹시 틀리는 것이 있다면 조금 힌트를 주시면 여기서 고쳐보겠다 식으로 말씀드리고 pt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틀린 문제는 없었습니다.

Pt가 끝나고, 자소서에서 적은 프로젝트 관련 질문 몇개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팩토리 관련쪽에서 일하고싶다고 자소서에서 적었는데, 그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직무면접은 15분이 되기도 전에 마지막 할말을 물어보셔서 "망한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해서 웃으면서 "저 벌써 끝난건가요?"라고 저도 모르게 물어봤는데, 그 모습도 조금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Ds는 면접 시간이 짧은 편이라, 저는 인간적인 면을 어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되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전자 무선사업부 S직군

저는 가자마자 CBT를 진행한 후 임원면접을 먼저 봤습니다. 면접관 세 분이 계셨는데 맨 왼쪽 분께서는 질문을 하나도 안하셨고 가운데 분과 오른쪽 분께서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면접관 세분 다 잘 웃어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30분 채워서 봤습니다.

1분 자기소개 후 이력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와 공모전 경험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과제를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했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등 일반적인 질문에서 크게 벗어난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질문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물어보셨고 다행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STAR 형식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꼬리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서 많이 횡설수설하고 당황해서 속으로 망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으셨는데 솔직하게 저의 단점까지 말해버렸습니다. 단점을 좋게 마무리하긴 했지만 끝나고 나와서 왜 단점까지 말해버렸을까 너무 마음에 걸렸고 횡설수설했던 내용들이 생각나서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임원을 잘 보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했고 최대한 솔직하고 겸손하게 어떤 질문이든 경험과 엮어서 알맹이 있는 대답을 하려고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문제는 안드로이드 GUI, TCP/IP, 세마포어/뮤텍스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세마포어/뮤텍스 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판서를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서를 하고 서서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던 내용이라 다행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더 심화된 질문이 2-3개 정도 더 들어왔고 하나는 잘 모르겠어서 더 공부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모전 프로젝트와 인턴 근무하며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였고 어디를 담당했고 어떻게 구현했고 왜 해당 기술을 사용했는지 등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의 깊이가 있었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더니 동시에 "아~"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라고 하셔서 갤럭시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자 분이 계셨는지 웃으면서 대답해주셨습니다. 직무 면접 또한 재미있게 대화했다는 느낌,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관심 있게 보시고 질문해주셔서 오히려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네트워크 사업부/sw개발직군]

면접은 직무-창의-임원 순으로 진행

직무 면접에서 전공 기초수준의 문제가 나올 줄 알고 전과목을 넓게 공부하고 갔는데 모두 네트워크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 모르는 내용이었어서 문제만 뒤적이다가 한문제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거여서 그걸로 준비했고 다행히 면접관님들께서 맞게 대답했다고 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와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자기소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면접은 맨 처음에 보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부담됐습니다. 후기를 보면 임원에서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간 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후에도 반응이 무미건조 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할말에서는 최대한 간절함과 진심이 보일 수 있게 어필 했습니다.

임원보고서 진짜 망했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합격한 걸 보니 정말 잘 보고 말고의 기준이 어렵다는 생각이 emspdygg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8 년 하

DS S 직군

3. PT 면접

50 분 동안 원하는 문제를 선택한 뒤 선택한 문제에 관련된 3 문제를 푸는 과정 입니다.

비록 제대로 알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을 강조하여 말하였고

PT 가 끝난 뒤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PT 문제에서 다 맞추지는

못하였지만 마지막 말할때까지 소프트웨어 열정을 표현한 것이 이번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전문가

SW 직군 문제는

1. OS 관련 문제

2. 데이터 베이스 관련 문제

3. C/C++ 메모리와 포인터 관련 문제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입니다.

저는 3 번문제를 선택하였고

세부분제는

1. public, private, protected 에 대한 상속 설명
2.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3. C 언어 소스코드가 주어지고 전역변수와 지역변수가 메모리 영역(data,bss,stack,heap 등) 어느 곳에

변수가 저장되는지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18 년하 DS S 직군 전자전공

두번째 직무면접 30 분인가 40 분동안 문제를 품

1. 인공지능 키워드 : 딥러닝 머신러닝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 다이나믹프로그래밍 키워드: 피보나치

3. 운영체제관련 키워드: 세마포어 뮤텍스

난 2 번을 선택했고 1 번은 다이나믹의 정의 2 번은 피보나치를 재귀로풀었을때의 문제점

3 번은 nx2 채우기 (백준문제)

다 잘풀었고 이것역시 피드백이별로없음 이것은 판서가능 설명후에 앓으라하고

그후에 자기소개 시키고 프로젝트에관한 이야기함 난 영상처리관련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등판해서 오지는 대화하고서 면접종료 다플젝이랑 자소서기반으로물어봤슴

마지막 인성면접 이것도 들어가기전에 인성 cbt 를봄 근데 지금까지 봐본 인성문제중 가장 어려움 강
답을 못찍겠슴 3 개중에 먼것을 고르라는데 하나라도 고르면 인간쓰레기되는느낌

그리고 풀고나서 면접장 들어감

자기소개 해보라하는데 내가스마트팩토리관련해서 일하고싶다는식으로 자기소개하니까 스마트팩토
리란 뭐라고생각하나?

이런질문하고 그 이후에는 내 프로젝트 질문 쪽하다가 스마트팩토리하고싶다더니 산업공학 관련과
목은 안들었네?? 이러더니 넘어감 그리고 마지막에 노조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냐고 물어봄

시험후 복기한것입니다. 선생님이 모의면접에서 질문하신내용이 2 개정도 똑같이 나왔습니니다.
감사합니다.

18 년하 DS S 직군 전자 전공

3. PT 면접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SW 직군 문제는

1. OS 관련 문제

2. 데이터 베이스 관련 문제

3. C/C++ 메모리와 포인터 관련 문제

입니다.



저는 3 번문제를 선택하였고

세부분제는

1. public, private, protected 에 대한 상속 설명

2.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3. C 언어 소스코드가 주어지고 전역변수와 지역변수가 메모리 영역(data,bss,stack,heap 등) 어느 곳에

변수가 저장되는지 설명하는 문제이었습니다.



18 년 상반기 삼성전자 리서치 S 직군

점심을 먹고 1

시간 대기후 직무면접장으로 이동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직무면접의 키워드는 해시테이블,

스택오버플로우,

유틸리티 함수 였고 저희 조는 한분 빠고 다 해시 테이블을 선택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직무면접을 잘 못본 것이 저의 탈락의 이유가 될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정말 쉬워서 실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2 학년 1 학기에 배운 자료구조 내용의 문제여서 저도 정말 없는 기억을 쥐어짜서 문제를 풀고 들어가자마자 판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업부는 모르겠으나 리서치는 면접장이 정말 협소하고 칠판도 너무 작아서 판서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키보다 훨씬 낮은 칠판이라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판서를 해야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판서하고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설명하며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쳐 가면서 설명했습니다.알고리즘 코드가 C++로 짜여져 있었는데 제가 입력 부분에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하자 바로 그부분에서 질문이 5 개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C++을 몰라서 코드를 잘못이해한것 같다고 하고,제가 틀린 부분 수정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면접장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삭막했는데 실수를 하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설명이 끝나고 앉으라고 하셔서 앉고,문제 외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전공 학점에 대해 의외로 질문이 안들어오고 저는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에세이에 클라우드 썼는데 클라우드 페일 오버 설명해보라고 하시고,에세이에 적은 팀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사실 클라우드 페일오버의 경우 학부생이 접하기 생소한 분야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라서 저도 잘은 몰라서 대충 설명했는데 면접 후 확인해보니 제 설명이 맞았어서 그 부분에서 점수 따지 않았나 생각도 했습니다.별 질문 없이 마지막 멘트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멘트에서 준준비 온 것을 안하고 너무 긴장하고 실수를 많이한 나머지,사실 전공학점이 낮아서 직무면접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실수를 많이 해 떨려서 제 모습 다 못보여 드린 것 같다.입사하게 된다면 정말뛰어난 인재로기여하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종료했습니다.나가보니 또 제가 제일 먼저 면접이 종료되어서,저는 모든 면접이 30 분 중 20 분 안팎으로 종료했습니다.

=====

DS s 직군

오후에는 PT

면접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45 분동안 키워드 3 개 중 1 개를 골라 세부 문제 3 개를 풀었습니다.

전자공학이라 컴공 분들에 비해 전공지식이 않지만,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부문만이라도 공부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장 들어가면 1 분자기소개를 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발표합니다.
이후 몇 개의 꼬리질문이 들어왔는데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1 분자기소개에서 특정 직무를 하고 싶다고 어필했었는데,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어떤 점에서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정도였습니다.

18 상 전자 리서치 S 직군

- 전공면접

3 명의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3 문제중 한문제를 골라푸는 것이고 제가 푼 문제는 응용프로그램의 메모리 구조에 관해 서술하는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PT 면접

- 탈락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구조를 대충 훑고만 가서 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소문제 하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보고 나왔을 때 망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SW 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해서 PT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네트워크 소켓 통신, 캐쉬 메모리 등이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대비를 할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락이었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학사는 PT
면접 때 연구개발은 3 문제를 다 풀어야 사실상 합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사 2 문제 이상 푼 사람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ㄷㄷ..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17 년 하반기 DS s 직군

직무면접은 대체적으로 같은 주제를 모두 선택했던것 같습니다.
소문제 1,2,3 중에 1 번은 어느정도 제대로 한거같은데 2,3,은 사실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학점이 3.68 정도인데.. 학점이 왜이렇게 낮냐는 질문을 받았고
동아리활동을하느라 학점관리가 조금 소홀했던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학점이 낮아서 업무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1 번문제 풀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 외우고있냐고 하셔서 조금 기대했는데
2,3 번문제 에대해서 그렇게 해결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받았고.
솔직히 전공 오래되서 잘 기억나지않아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깊게 하지못한것 같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17 년 하반기 DS S 직군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PT에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3 가지 주제중 한 가지를 고르는데

세 개다 모르는 것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ㅠㅠ

OOP 관련 내용이었는데, 일단 고르고

3 문제 중에 제일 쉬운 1 번문제만 풀고 들어갔더니

1 번 문제는 뒛고, 2 번부터 하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ㅋㅋ

양해의 말씀드리구 학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설명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17 년 하반기 CEIM S 직군

- 직무 면접

이후에 인성면접을 볼 거라 생각하였지만 바로 직무면접 문제 풀이를 하러 강의실로 갔습니다. 문제는 기초적인 논리회로나 알고리즘 문제였습니다. c++, 자료구조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보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에서 앞번호라서 바로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각 면접 도우미 분들이 노크하고 들어가라,
인사하면서 들어가라 등 면접관님들 성향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면접은 자기소개 후, 칠판에 판서를 한 뒤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해당 문제를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질문이나 정말 아는 지 물어보는 질문을 하십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후에는 학부, 대학원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부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물어보셨습니다. 압박은 아니어서 편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해결 과정을 물어보셨습니다.

17 년 하 CEIM S 직군
면접은 11 월 9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기술 면접, CBT , 점심을 먹고 창의 면접, 인성면접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술면접의 경우 3 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1. HCI 를 이용한 스퀴즈(?) 디텍트 방법
2. 객체지향 코드를 수정하고 수도코드를 작성하라
3. 멀티 스레드환경에서 순차접근방법 구현

저는 3 번을 선택했고, 모바일에서 usb 포트를 사용할 때라는 제한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침착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내용 중 제가 직접 만들어야하는 함수 부분을 설계하고 설계 방법, 예외처리 등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빠르게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영상처리 관련 프로젝트, 스마트 허브와 클라우드의 차이, 프로그래밍 개발론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했고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며 면접을 마쳤습니다.

CBT 의 경우 대기업 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서베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모르는 이슈들은 기업에 유리하게 서베이했습니다. 반 삼성적 성향이 10%내외로 나왔고, 이는 창의 면접의 주제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지원자는 대기업 규제에 동의했고,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창의 면접 주제를 받았습니다)

17 상

면접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면접과 창의면접은 크게 영향이 없는것 같습니다. 임원면접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2 가지 정도 있는것 같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 분자기소개 하고, 바로 학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님이 왜이렇게 낮냐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2. 예전에 멤버십으로 면접을 봐서 떨어진 이력

저번에 면접을 봐서 떨어졌고, 이번에 공채로 다시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멤버십으로 본 면접 이력이 한번만 남아있는줄 알았는데 두번 떨어지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
요.

멤버십으로 두번 떨어진 이력이 있다 보니 좋게 보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은 임원면접 전체적인 질문 내용입니다.

- 여는 질문
- 자기소개 해주세요.
- 학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변명을 해서라도 저를 설득해 주세요.
- 로봇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신호 및 시스템 수업은 왜이렇게 낮은지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라인트레이서 관련 상장이 많은데 설명해주세요.
- 멤버십으로 왜 지원하지 않았는지?
- 저번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럼 다른 지원자들보다 어떤 분야에서 더 기여할 수 있는지?
- 삼성이 잘하고 있는점과 못하고 있는점.
--> 기존의 기기를 이용하는 삼성페이가 인상깊었다고 말하고
못하는점은 생각이 나지 않아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 대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선생님에게 배운내용과 멤버십활동을 하며 지원받은 점을 엮어 답했습니다.

- 마지막 할말

=====

예전후기

안녕하세요, 삼성면접특강 수강생 기

안녕하세요, 어제 면접보고 간단한 후기를 남깁니다.

소프트웨어 직군이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SW 검정(4 시간) / PT, 인성 면접을 봤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PT 와 인성 면접도 순서가 다른데 저는 PT 를 먼저보고 인성 면접을 보았습니다.
(PT 는 프로그램 코딩관련, 4:1)

인성면접(3:1)에서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 (전공관련) Virtual Function 이 무엇인가? ->
제가 인성면접에서 전공 지식을 물어볼 줄 몰라서 당황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하게되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을 표현해내는 것도 능력중 하나예요, ****
이라고 설명하려고 한거죠?' 라는식으로 말하고 답변 끝났습니다.

○ 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데, 팀프로젝트에서 주로 팀 리더 역할을 많이했는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는가?

○ 팀 프로젝트에서의 본인 역할

-> 그외 기억안나지만 면접의 절반을 팀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꼬리질문으로,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오전 SW 검정에 관한 질문 (몇문제 풀었는지)

○
면접이 처음이냐는 질문과 작년 하반기 때 봤다고 답변하니 작년 하반기에는 어디까지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리고 작년 하반기때는 SW 검정 몇문제 풀었는지 물어봤습니다.

->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하니, 따로 실기 준비한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보통 개발자들은 최대한 군입대를 미루는데, 2 학년을 마치고 간 이유

○ 중간에 1년 휴학을 한 이유 (저는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휴학했습니다.)

○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느낀점에 관한 질문

○ 에세이 3 번 항목관련 질문 (저는 타이젠과 개방성에 관한 글을 썼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개방성과 그것을 전공에 접목시켜 프로그래밍 해본 경험)

○ 종합설계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

○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질문 (몇개나 다루고 얼마나 다루는지)

이정도까지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싶지만 PT 와 인성면접 끝내고 드는 느낌은 이번에도 힘들것 같은 생각뿐
이네요.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래도 홍기찬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덕분에 지난 면접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11 월

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CE/IM SW 면접후기 남길게요!

먼저 저희는 PT 면접 대신 SW 역량테스트(심화)를 한번 더 봤어요!

이전에는 3 시간에 2 문제 풀 때 문제난이도가 쉬워서 1 시간반만에 풀수있을 정도 였는데,
이번에는 4 시간에 1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는 어려웠고 예제 테스트케이스도 soft 해서 쉬운듯 했으나 실제 점수매길때는 하드한 테스트케이스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같이간 사람들이랑 같이 비교해봐도 다 제출시 다맞는정도만 풀었다고.. 그랬어요ㅋㅋ

그리고 인성면접은 완전 압박이였습니다 ㅠㅠ.. 인성검사끝나고 면접 했는데

선생님이 주의주신 눈시선처리도 계속 안되서 많이 걱정하고 대답도 되게 지금생각하면 못한거같고,

면접관분들께서 목소리 작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될거같다고 말하셔서 아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또 대학생활 하면서 대학 내 동아리 말고,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외부활동은 한적 없는지에 대해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주의주신 부분들 잘 생각해서 면접할 땐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머릿속은 하얗고 아무생각도 안들고, 결국 하나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엉뚱한대답이 나왔더니 웃으시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다시 압박이긴 했지만.

클로징 멘트 시에는 면접관분들께서 모두 웃으시긴 했지만 너무 대답을 못한것 같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인성 면접을 봐서,

그 이후로 삼성은 못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창의성면접을 쳤습니다 ㅠㅠ...

45 분동안 문제를 푸는데 5 분은 살아가면서 있었던 창의적인일 생각하는거고 면접에서 문제 해결 이후 질문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40 분은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성면접이 자꾸 생각나서 아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와야지 안될꺼야 이 생각으로 풀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실제로 발표 후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지?

이렇게 깊게 들어와버려서 그냥 최대한 상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W 분야인데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은 없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후 살아오면서 창의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동아리 교육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에서 창의적인건 없냐고 하셔서,

공모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창의성 면접 끝나고 2 시간 대기 후 밥먹고, 역량테스트 치러갔습니다.

역량테스트도 마음놓고 쳤어요.....ㅋㅋㅋㅋㅋ

--

16 년 하반기

삼성면접대비반 ooo 입니다. 면접후기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DS 사업부문 S 직군 지원자 ooo 입니다.

15 년 하반기와 16 년 하반기 면접 후기를 간단히 적어 보내드립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5 년 하반기와 16 년 하반기의 면접 형식은 동일했습니다.

각 조별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전공 PT - 임원 -
창의성 면접과 인성검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달랐던 점은,

작년에는 주제선정의 시간 없이 전부 공통적인 전공관련 3 문제를 풀이하고 피티했던것과는 달리,

올해는 5 분 정도의 주제 선정시간을 갖고 각자가 선정한 주제관련 문제를 풀이했다는 점입니다.

5 분의 주제선정시간을 갖고 선정한 주제로 45 분간 문제풀이 진행하였으며,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었습니다.

16 년 상반기 입사자 중 동기들이 많아 얼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동기들 중 인사 TF 로 감독관 지원을 나온 친구들이 많아 긴장도 풀고

여러모로 편하게 봤던 면접이었습니다.

각 면접에 관한 간략한 팁이나 진행방식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공면접>

SW 직군임에도 하드웨어나 설비 관련 지식을 묻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아마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평가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 BEI 면접과 같은 전공관련 경험에 관한 구조화 질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 별로 해당 지원 직군이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라도 파악하고 가셔야 답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하고 갔는데,

면접관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임원면접>

학점에 관한 압박질문으로 시간의 2/3 를 소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솔직한 인정과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고,

그에 대한 꼬리질문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원자를 뽑아야 하냐는 질문에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 1 년간 다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삼성전자에 대한 간절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러자 면접관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전반적인 인성관련 질문들로 진행하였고,

자소서나 이력서에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꼬리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이 유독 압박이 심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은 화기애애했다고...ㅠㅠ)

<창의성면접>

쌤께서 알려주신 방식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주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분석기법으로 SWOT 과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며 설명하였고, 10 분 정도 발표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A4 두장 분량의 긴 글을 작성해 들어갔는데, 분량과 내용에 놀라시며 이과인데 문장력이 괜찮다며 칭찬해주셨고, 학업 외의 제 대외활동에서 이를 키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BEI 면접같이 창의적인 경험에 관한 질문들로 나머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할말을 창의성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셔서 제 생각을 답변드리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관련 총정리 및 팁>

면접이 새벽부터 진행되는지라 체력이 중요합니다.

전날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꼭 체력관리 하세요.

대기시간이 긴데 개인짐을 양치도구나 화장품 이외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분들께서 질의응답이나 이런걸로 지루함을 풀려고 해주시는 편이니 긴장하지 마시고 대기실에서는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PT 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어리버리 하시거나 소극적이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있는 지식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 논지가 뚜렷하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공이나 직무 관련 이슈를 간단히라도 알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합격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여는 질문으로 통학거리가 먼 것 같은데 통학을 했냐 자취를 했냐고 물어보셨을때 처음엔 통학하다가 중간에 코피가 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이후에 자취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면접관님들께서는 모두 웃으셨지만, 저는 체력 문제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또 기여할수 있는 점, 자신의 단점 물어보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정도만 물어보고 그냥 다같이 3 번 웃다가 끝나서 너무 애매했습니다. 면접 시간도 10 분에서 15 분으로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웃으면서 떨어뜨린다는 소문 때문에 그냥 너무 다들 웃고만 끝나셔서 걱정이 많았지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pt 면접은 전공지식을 묻는 수준으로만 나왔고 학부 과정동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풀 수 있는 수준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판서를 안지우고 나와서 너무 불안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문제 관련 질문 말고도 학점에 관해 질문들도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물어보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싶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2016 하반기 삼성전자 S 직군 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CEIM)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제게는 홍기찬 선생님의 삼성 면접 특강이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봐 면접 후기 남겨드립니다.

먼저 아침 6 시에 잠실에서 버스를 타고 삼성전자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모여서 간단히 서약서 같은 것을 쓴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을 보러 이동하였습니다.

이 때 대기실에 모인 지원자끼리 대화는 금지됩니다.

각 그룹은 다른 순서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창의성 -> 기술 -> 인성 면접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성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5 분 창의적인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25 분 동안 창의성 면접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문제는 알려져 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때, A4 용지 한장을 면접 때 들고갈 수 있도록 주는데 이게 나중에 겪고 보니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장황하게 제가 문제를 풀었던 과정을 줄줄이 썼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면접장에서 판서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적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잠시 대기한 뒤에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면접을 진행합니다.

발표 시간은 5 분이라고 하지만 좀 넘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술 면접은 저는 S

직군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3

가지 문제가 적힌 종이를 줍니다.

키워드를 보고 문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문제를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나눠줍니다. 이 때, 1 시간 풀이 시간을 주는데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푸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팁이라면...가장 간단한 방법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방법으로 푸는 것이 면접장 가서 할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구요...제 느낌상 어쨌면 인성면접보다도 저는 기술면접의 비중이 더 크지 않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면접도 10 분 정도의 발표 시간과 판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시간이 조금 넘어도 상관없고, 판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한 후에

발표를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내가 발표한 내용외에도 왜 이 주제를 골랐는지 자기소개라든지, 평소에 뭐에 관심있는지 등의 일반적인 질문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면접장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이걸 정말 케바케 면접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 걸리냐에 따라 면접이 방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엄하게 진행된 반면 저희 앞 면접방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수업에서 더욱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제가 특강에서 배웠던 데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답은 두괄식으로 천천히, 적절한 자기 어필과

함께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딱히 압박 면접이라고는 못 느꼈지만, 대답을 미진하게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의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는 3:1 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유독 질문 안하는 한분이 면접방마다 무조건 한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1 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진행하고 면접장에서 나와서 다시 대기장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지원자들끼리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짧지만 귀한 인맥을 쌓고 면접비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홍기찬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도 건승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짧은 후기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8 기 수강생 ooo 면접 후기

16-11

안녕하세요. 홍쌤 덕분에, 11 월 4 일 삼성 면접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간단하게나마 후기 남길게요.

말주변이 없어서 (글도 마찬가지로)

후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홍쌤 덕분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되었고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진작 학원 다닐걸 그랬습니다.

계속 면접에서 탈락해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피드백이 있었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ㅎㅎ

저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라인, 네이버, 삼성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3 곳 중 한군데만 가고 싶어요. (위기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속 면접에서 탈락해 아쉬워했는데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잘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합격인의 밤에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CE/IM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천동 인재개발원에서 뵈고, 집에서 15분 거리라 새벽에 위기의식 없이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모든 면접은 면접 전 대기 - 호명 후 이동 - 잠시 대기 후 면접 진행의 구조입니다. (잠깐 CBT 보러 이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임원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임원면접은 가장 먼저 보고 싶지 않았는데 10시에 호명되어 임원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 인원 별 이동 후 각자 본인이 보는 면접 실 앞에서 대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면접실 앞에서 조금 기다렸는데 면접관 분이 안들어오셔서였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까칠한 질문은 많이받았습니다

Q1. 자기소개 준비하지 않은거로 부탁드립니다.

A1. 준비한 것 조금 변형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떨리는데 준비 안할걸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Q2. 너무 외운티가 나는거 같은데요..?

A2. 너무 떨려서, 조금 경직되고 외운것 같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답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

Q3. 성적이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수석 졸업하셨습니까?

A3. 그렇습니다.

Q4. 성적이 좋으셔서 그런데, 공부만 하신거 같은데요

A4. 간단한 아르바이트 경험 및 사교 활동 (운동, 모임 등)으로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과 너무 연관짓지 말라는 홍쌤의 피드백 덕분입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5. 음.. 그래도 좀 더 끼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요새는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추세지요. 그런데 너무 모범생 스타일 이신거 같아요.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A5. 저의 장점,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 온 것과 사교활동 및 운동으로 인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조직 적응을 잘 한다는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Q6. 에세이 3 번에 거창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실제로 회사에 오게되면 거창한 일을 하기보단 반복적인 일을 한다던지 본인이 하고싶었던 것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가요?

A6. 이미 연구실 생활로 인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고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어도 분명 그 속에서 조그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늘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좀 별로였던 대답 같아요.

Q7. 별명이 뭐예요?

A7. 평소 별명은 아니지만, 저의 조직에서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잘 듣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별명을 말했습니다. 준비를 안해서 당황했으나,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Q8. 아이폰쓰고 계신가요? 삼성에 입사해서 삼성 폰을 써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갔을 때, 아래 직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삼성폰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아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8.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아이폰 사용합니다.) 그 후 매우 어려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압박면접이 이런 느낌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아이폰을 안쓰다고 하긴 싫어서 솔직하게 아이폰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삼성에 입사하여 개발자를 꿈꾸고 있기에 자사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타사 제품을 사용하며 각 장점을 수용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자사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포부를 갖고 입사를 지원하였기에 자사제품이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날카롭고 매우 압박스러워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했고 의견을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임원면접을 잘 못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때 목례, 앉기 전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나올 때 목례 잊지 않고 했습니다.

다음, 대기 후 창의력 면접 준비 후 창의력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창의력 준비 후 잠깐 대기하거나 식사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2 시정도에 봤네요 저는. 2 시에 준비 후 3~4 시에 면접이었습니다.

창의력 면접은 M 직군, S 직군 같이 준비했던건 사실인데, 감독하시는 분께서는 S 직군인 저희는 창의력에 굉장히 관대하니, 편하게 자기 생각을 키워드를 잘 넣어서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였고 M 직군은 열심히 하셔야 할거라고 했습니다. (꽤 날카롭게 분석하셔야 하나 봐요. 저는 S 직군이라 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S 직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주어진 상황을 주고 키워드를 2 개 골라서 그에 대한 본인의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커피 전문점의 수가 2005 년에서 2009 년동안 매출이 5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상황과, 1000 원자리 저가형 커피가 인기를하고 있다는 두가지 상황에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가격, 무인화, 선택 등등 7~8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컴퓨터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감독관님들께 전달해야하고, A4 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발표해야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해뒀던 상품이 있었고 또 SW 직군이라는 점을 잘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답지를 작성했습니다.

무인화와 선택 두가지를 넣어서 무인 커피전문점에 대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로봇과 무선 통신(블루투스)를 활용한 방안까지 나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학부생 때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가 있기에, 구체적인 기술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개도 많이 끄덕겨려주셨고 칭찬 해주셔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든지 단가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조금 당황했는데 (거기까진 생각안 했으니깐요 ㅎㅎ)

실제 타겟이 되는 카페를 알고있었고 그런 점을 예시로들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와 가격적인 면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재밌었고,

화이트 보드가 있었으면 구조도와 제안한 로봇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참, 상당히 재밌던건 식사후에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모르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독관님?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웃어주셨기에 떨지 않고 자신있게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맛있는거 많이있어서 뭘 고를지 고민 많이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입사후에는 더 맛있는거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입사하여 맛있는 밥 함께 먹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잘한건진 모르겠어요 ㅎㅎ

마지막으로 PT 면접을 보았습니다. 1 시간 가까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으며, PT 면접 준비 후에 대기 후 4명 호명되어 면접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6시에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PT 면접은 주어진 3 문제 중 1 문제를 고르고 (고른 후에는 변경 불가능) 그 문제를 풀고 PT 준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SW 직군이라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 1 개, 알고리즘 의사코드 작성 1 문제, 운영체제 스케줄링 문제 1 개가 있었고 난이도는 중, 하, 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모든 면접이 끝나고 면접 진행하시는 분이, 오후(제가 본 시간대) 문제가 쉬운 편이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알고리즘 의사코드 작성'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는 평소에 알고리즘 스터디 진행 및 모임을 주최하고 있기에 저의 강점을 더 어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골랐습니다. 3 가지 문제 모두 풀 수 있는 문제 였지만, 운영체제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서 자칫하면 틀릴 수 있으니 고르지 않는게 최선이라 판단한 점도 있구요.

아무튼, 면접이 진행되었을 때 진행 전 필기할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했으며, 그 후에 면접관 분들께 오래 기다리지 않는 선에서 칠판에 모든 필기를 했습니다. 팁을 드리면 3 가지 색이 있으니 잘 이용하세요.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PT 면접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판서를 잘한다는 칭찬 덕분이었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지금까지 면접 본 면접자 중 의사코드를 제일 잘 작성했다며 칭찬해주셨고 평소에도 판서를 저렇게 깔끔하게 하나며 놀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거나 (재능 나눔입니다)

하는 경을 말씀드리고 평소에도 많이 글을 작성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의 프로젝트나 이력서에 있는 내용도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어떤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C/C++은 '중'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 역량을 잘 발휘하여 조직 내에서 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네이버 등의 자소서에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면접 일정이 종료되었고 그제서야 배가 고팠네요..

ㅎㅎ 6시부터 8시 반까지는 계속 면접이 끝나길 대기하였습니다.

제가 본 날 인원이 많고 밀려서 S 직군만 8시 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저의 면접 평가는 삼성이 상당히 지원자를 배려하는 점은 좋았습니다.

인성면접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점이 많았는데 저는 이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회의에 참여하였을 때,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굿대없게 의견을 바꾸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에요.

아무튼, 면접 자체가 재밌어서(특히 창의력과 PT 는 매우 재밌게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하고싶다는건 아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군생활과 같아요.

또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은 할 만해요 ㅋㅋ)

그 외에도 같이 면접 보신 분들이 화이팅 해주셨고 저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힘
이 많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대기실이나 이동 중 면접자 간 대화는 금지입니다.

금지란 이야기는 안하는게 좋다는 의미죠? 제 주변에 많이 떠드는 분들 보았는데,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을 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안좋아보였습니다.

12 시간 정도 말 안할 수 있어요. 식사나 화장실에서 충분히 대화 가능하고요.

주의하시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로션, 치술 등을 잘 챙겨가시고 빗도 챙겨가셔서 말끔하게 들어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입술이 잘 마르는 편이라 면접 전에 꼭 립밤 발랐어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구요.

단, 면접장 내에서 막 화장고치시진 말고 화장실가셔서 하세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많이 주시고요.

또한, 물 커피 지원 빵빵하게 해줍니다.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졸아서 오전 면접 때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치만 커피정도 마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삼성 SDS, ICT 개발운영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창의성>

저는 처음 창의성 면접을 봤습니다.

문제는 2 문제 주어지고 시간은 각각 5 분 40 분 주어집니다.

5 분 짜리 문제는 경험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고, 40 분짜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계획해보는 이야기 입니다.

45 분 문제 풀고 5 분정도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면접장 들어가서 pt 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왜그렇게 생각했냐, 자세하게 설명달라, 이러이러한 역경?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등의 질문을 해주십니다.

또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엉뚱한 아이디어를 발표해서 그런지 발표 듣고 좀 웃으시더라구요 ㅎㅎ

개인적으로는 창의성 면접이니까 엉뚱하게 해서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때는 '오~'

이런 식으로 반응 해주셔서 대답하는 중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원>

임원면접의 경우는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이력서 기반으로 대체적으로 질문하셨고 조금 특이한 경험이나 이력있으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학교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학교가 서울권 학교도 아니고 국립대도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력서와 1 분 자기소개에서 인턴했던걸 말씀드렸더니 인턴때 무슨일 했는지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떤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기준에 존재하는 것들이랑 차별점이 뭐였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다룰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고 물어 보셔서 c, c++ , java 를 학부 시절에 배웠다고 말했더니 각각 언어의 다른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평소에 간단하게 알던 c 는 절차지향 이고 ~~한다, c++은 객체 지향이고 클래스와 상속, 오버라이딩 등의 특징이 있다,

java 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고 c 나 c++과는 다르게 포인터 접근이 안된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 해보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ㅠㅠ

회사 지원동기나 회사관련 질문들 같은거는 안물어 보셨고 다른 질문들은 하루가 지나기도 했고 너무紧张해서 잘 기억이 안나네요...

<직무>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면접을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종이랑 펜만 가지고 문제를 풀니다.

2 문제 주어지고 10 분동안 두 문제 다 갖고 있다가 10 분 뒤에 걷어가고 총 50 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솔루션이나 시스템등을 개발할때 개선점?

필요점 등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아무래도 시스템 구조적인 지식이나

업무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공부ja 필요할거 같습니다.

전 두 문제 중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는데,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간에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해주셨고,

발표 자체도 너무 말도안되고 근거없게 발표해서 걱정했는데

문제 풀던 방향도 틀려서 초 멘붕이 왔습니다.

뭐 그래도 어찌어찌 잘 마무리는 지었는데, 아무래도 떨어질것만 같은 예감이 거의 뭐 80% ?

ㅠ 슬프네요.

무튼 전체적으로 면접에서는 창의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쓴 후기를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 제가 다시 받아보는 일이 생길거 같네요 ㅋㅋㅇㅇㅇ

ㅁ류 ㅁㅁ ㅁㅁ

어쨌든 홍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ㅎㅎ

선생님 삼성 SDS 11.01 오전반 후기입니다.

16-11

쌤 안녕하세요. 삼성면접반 ooo 입니다.

사실 면접을 보고나서 잘본느낌도 못본느낌도 없고 불안하기만하네요. ㅁ

다른 회사 면접준비나 열심히해야할 것 같네요.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럼 삼성 SDS 후기를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생님 삼성 SDS ICT 개발 직무 오전반 후기

삼성 SDS 는 면접 시간 자체가 오전 오후 나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기시간이 거의없고 바로바로
진행해서 버겁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PT,창의, 임원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우선 피티면접입니다. 피티면접 주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시스템 구축관련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라이선스를 얻어서 사용할것인가 아니면 오픈소스를 통해 직접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였습니다.

생각보다 피티 면접 준비시간이 금방갔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피티 순서와 표를그려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서와 표를 그린것은 잘했다고 해주셨지만 전달력에 있어 아쉬운점을 피드백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개선해야될 부분인것 같다고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이후에는 IT 개발 관련 질문이 있었고,
삼성 SDS 가 솔루션 SW 를 개발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기업조사 기반으로 삼성 SD
S 가 국내 SI
1 위임에도 삼성전자에 의존 비율이 70%가되어서 독자적인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
고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기사내용아니냐고해서 조사를 기반으로 생각정리라고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각종 중요한부분이 많은데 본인이 실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라고 하셔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가장 중요한 것같다고 제시 했습니다.(디자인과 설계가 중요한것
같아서=> 제 생각)

자소서를 어느정도 읽어보신 느낌이 있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 창의를면접입니다.

창의면접은 고속도로에 임시 안전판을 설치할 것인데 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리를 조절할 것인가 입니다.

2 중 추돌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지. 제시어는 시야, 빛의 세기, 속도 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판 솔루션 상품제시였습니다.

면접관님들께 전해지는 제안서는 간단하게 서술이아닌 키워드형식으로 (반페이지?)분량을 제출하였습니다.

창의면접에서는 반박에 대해 대비해야하는데 그부분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창의관련 경험을 물어보셨고 특허나 앱서비스화 한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한 후에 프로젝트외에 일상에서

또다른 창의 경험을 제시해달라 하셔서 20 살때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시하였습니다.

3) 임원면접입니다.(역시 가장 중요한 느낌..)

저는 세명의 임원분이 앉아계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조였습니다.

가운데 임원분이 자기소개를 시키시고 개발했던 앱에대해 설명

그리고 솔루션 SW 를 개발하고 싶다 하였더니 솔루션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 => 현직자를 통해 알게된 솔루션 SW 의 정의와 제생각을 근거로 설명.

삼성 SDS 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안드로이드 개발을 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웹 시스템구축 경험을 말씀드렸고 안드로이드 및 웹을 해왔던 계기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싶은 맘에 하게되었고

이런것들은 솔루션 SW 개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가 몇이나?

=>형제관계를 설명..(의도를 모르겠습니다 π)

IT 쪽 어느 분야를 하고싶냐?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가 에세이 3 에 빅데이터를 적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사람들이 너무 많이 제시해서 재미없다하시고 다른애기 해달라하셔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험이 많진않지만 임베비드 개발을 통해 IOT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설명해달라..(본인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

다소 조심스럽지만 갤럭시노트 7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선생님께서 수업때 말씀하신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데도 노트 7 이 리콜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래도 삼성갤럭시노트가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때문인것 같다 하였습니다.

갤럭시노트는 지금까지 안전된 제품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들이 노트 7 의 위험성을 덜 느끼는것 같다고 했습니다.(제가 노트시리즈를 쭉 사용해왔다는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리콜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 환급금을 늘리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늘릴수 있을 것 같다.

돈 말고 다른 방법 알려달라.

=>

잠시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삼성갤럭시노트

7

위험사태가 퍼진게기가 SNS 인데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리콜 캠페인 광고를 하게 되면 자발적 동기부여가 될것 같다.

혹시 다른 거 있냐?

=>

제가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데 티저광고가 나왔던 것을보고 미디어 매체에 4~5 초 정도 리콜동료 티저광고를 하면 좋을것 같다고하였습니다.

가운데 면접관님이 좋은 방안인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됐는데 이말 꼭하고 싶은것 있냐?

사실 제가 1 학년때 학점이 이수한 것이 없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물어보실줄 알았는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에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학년때 여러 사정이 겹쳐서 학사경고 2 회 0.75 를 맞고 군 전역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실패라는 것을 딛고 다른 학생들보다 프로그래밍 대회 및 naver 세미나 등을 찾아다니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지막 학년때 성적장학금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 SDS 의 일원이 된다면, 이러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신입사원의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끝나고나니 오후 1 시쯤 되었습니다.

사실 잘했다는 생각은 안들고 면접때 말을 잘 못했던것만 떠오르네요...

하지만 성생님 이랑 했던 모의면접이 더 긴장되었던 만큼 실전에서 긴장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통해 배운게 많은것 같습니다. 삼성 합격인의 밤에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17 년 상반기

삼성전자 S 직군 기출

1. 스트레티지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상황을 스트레티지 패턴에 맞춘 UML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라.
2. 다음 부동산소수점 알고리즘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하여라.
3. 리팩토링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상황을 리팩토링 하여라.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삼성전자 CE/IM S 직군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고싶었던 기업인 삼성에 들어가 이렇게 후기를 남기네요.
제가 합격하는데 있어 홍기찬 선생님의 삼성면접반 수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가장 들어가기 쉬우면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결과를 알 수 없는 기업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마음가짐과 면접 중에 명심했던 태도가 아마 합격을 하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의 삼성 수업을 듣게 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문과생들은 모르겠지만 이과생들에게는 자소서보다는 학점과 경력사항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경력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잘 포장해서 적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과정 중 면접관님들은 거의 자소서보다는 이력사항에 중심을 두어 질문했습니다.
또한 자소서 관련해서는 사회이슈에 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인적성(코딩테스트)]

저의 경우 백준을 통해서 DP/ BFS/ DFS 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삼성 코드그라운드에서 문제를 풀며 준비한 학생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실력있는 분들이라면 SCPC 대회나 소맴을 하면 삼성입사에 더 유리한거 같습니다.
SCPC 에서 상위권이신 분은 따로 인사과에서 연락이 가는것을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창의면접]

창의면접은 창의라기보다는 논리면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왜?

어떻게? 에 초점을 맞춰서 잘 정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준비시간동안 작성한 문서가 면접관들에게도 공유가 되니 줄글로 쓰기보다는 보고서 형식처럼 정리하면 본인과 면접관들이 이해하기에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 분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20 분동안은 어떤 질문이 들어올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겠다는 질의시간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주로 나눈 대화는

2. 어떻게 실현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모순이 있는지

3. 실제로 생각한 서비스? 기술? 이 실현된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지

4.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 주를 이뤘습니다.

추가로 학창시절동안 창의적인 경험과 그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와 방법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 선생님 말씀대로 창의면접은 큰 비중이 없는것 같습니다.

실무나 임원면접에 들어가기전 몸풀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무면접]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S 직군에 초점을 맞춰 적겠습니다. 4:1

면접으로 프로젝트와 준비시간동안 풀었던 내용을 토대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관서포함 5~10 분정도 발표를 하고 발표에 대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학창시절동안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지,

~~~~한 경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선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 묻습니다.

예를들어 안드로이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안드로이드 생명주기,

컨포넌트 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또한 왜 S 직군을 선택했고 삼성전자에서 맡고 싶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꼬리질문이 이어 집니다.

[임원면접]

임원면접은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면접입니다.

저의 경우 면접내내 분위기도 너무 안좋았고 굉장히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떨어졌지만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

까지 보내놓은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붙어서 후기를 남기고있네요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면접과정 중 제가 잘한 부분은 인정과 겸손 그리고 침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해온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굼속에서도 끝까지 눈을 마주치고 침착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한 점이 합격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17 년 상반기

전날 오후 10 시에 취침해서 다음날 오전 1 시에 기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 한번 복습하고

복장 갖추고

오전 6 시까지 양재로 집합

화성에 도착하니 7 시쯤 넘었습니다.

저는 단체 대기실에서 두번째 조였습니다.

대기후 점심식사를 하고 조금 대기하다가 1 시간? 정도 인성검사 했습니다.

## 5. 인성 면접

제 느낌상 면접관들 점심 먹고 첫 면접자가 저희 조인 것 같았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분만 저 보시면서 웃어주시고 다른 두 분은 보지도 않고 성적표 보면서 인상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세분모두 아이컨택하고 앉으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습니다.

앞에 창의 면접 잘봤나

말하고 싶은 것은 모두 말하고 나온거 같습니다.

(하니까 면접관님이 표정이 의외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이 좀 부실했는데 괜찮냐? 힘은 안드냐?

원해 체력이 강해서 괜찮습니다. (하니까 앞서 한 표정을 또 하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소개서에서 S.LSI

사업부에서 아틱과 같은 SoC

펌웨어 제작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아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배 중에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했습니다.

기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자세하게 말해줄수있냐?

반도체 수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개 끄덕이셨습니다.)

1 학년 1 학기 이후에 1 학기 휴학은 왜 했냐?

당시에 전공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고정 관념이 있어서 진로를 위해 수능에 한 번 더 도전하였습니다.

왜 고정 관념이 있냐?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한게 아니라 수능 점수에 맞추어 입학하였습니다. (음~ 그렇군 이러셨습니다.)

이후에 한번 더 1 학기 휴학했는데 이때는 뭐했나?

앞서 말한 휴학 이후에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시작하였고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서 JAVA 를 학습하였습니다.

외부에서 공부할 때는 뭐 어떻게 공부했나 방법적으로?

심각하게 전투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음~ 이랬습니다.)

3 학년때는 학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낮은가?

그 당시에 파일 버전 관리 웹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점에 소홀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 까지 신경을 못쓰나?

지금 생각해도 그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음...  
제가 약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3 개월간 혼자 모두 진행 하였기 때문에 학점을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

네!  
( 밝고 당차고 자신있게 말하니 처음부터 인상 쓰고있던 면접관님이 약간 웃으셨습  
니다. )

왜 혼자 했나? 팀을 구하지은 않았었나?

학교내에서 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뜻이 같은 친구들을 찾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혼자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 프로젝트에 왜 관심이 없었나?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음.....  
면접관님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거 알지만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젝트를 한  
다거나 학업에 저만큼 열정을 갖고 관심있는 학우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 학생들은 모두 그런가요?

모두 라고 단정 지을 수 는 없지만 .....(당황당황,,,,)

아무래도 학년도 어렸고 해서 관심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죄송 당황 한 기색 역력한 표정이 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님이 조금 웃으셨습니다.)

면접을 굉장히 잘 하시는거 같은데 (이때 제 표정은 '응? 제가요?' -  
멀뚱멀뚱 이런 표정) 다른 회사도 면접 보셨나요?

아닙니다. 면접은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다른 기업도 원서 지원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로우레벨 개발을 원해서 많은 회사를 지원 하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님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학습을 많이 해왔는데 왜 지원은 ds 로 했  
나?

네 맞습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환경을 접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는  
로우 레벨 개발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이 때 이후로는 세 면접관님 모두 저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

아틱 제품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작년에 삼성전자 SOSCON

행사에 참여했을 때 아틱 발표세션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말 있으면 말해주세요.

마지막발언으로 실제 짧게 경험을 예로 들어 협업,

매뉴얼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고 하고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매뉴얼을 잘 지키  
겠다하고.

다시한번 S.LSI 부서에서 아틱 펌웨어를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활짝 웃음.  
세분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

나가면서 살짝 들렸는데 처음에 인상 안좋으셨더 면접관님중 한분이 '제는 정말 깔끔하네'  
라고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 6. 직무 면접

인성 면접 후 대기 시간을 갖고 세 문제 중 1 개 택하면 또다른 페이퍼를 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총 세문제 였습니다.

다행히 출발 직전에 봤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와 드디어 3 번 나왔네' 이러셨습니다.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1 번 판서후 설명 2 번 판서 후 설명 3 번 판서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설명한거에 조금 오류가 있었으나 잘 넘어가고 딱히 제 설명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고나 이러한 말들은 없었습니다.

자기 소개에서 임베디드 실습을 하였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부서가 임베디드를 하는 부서로 알고 온 것 아니냐?

임베디드 실습은 펌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강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덕고덕)

임베디드 프로그램은 어떤걸 했나?

비글본 보드에 작은 프로그램을 올려서 실행 시키는 실습이었습니다.

3 학년 학점은 본인 역량에 비해 너무 낮는데 이유가 있나?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약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개인으로 진행해서 학점에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낮은데..?

네 저도 그 점은 지금도 매우 후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당시 프로젝트 진행과 저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고덕고덕)

그럼 그 프로젝트는 어떤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줄수 있나?

파일 버전 관리 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윈도우에 front, 웹서버, db 서버가 모두 설치 되어있는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DB, 파일 서버를 vmware 의 우분투로 이동시켜서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윈도우에서 얼마나 편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실 시스템 환경이 바뀌다 보니 파티션 나누고 하는 거부터 환경 설정 세팅까지 3주 정도 걸렸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접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3 번 문제를 선택했나?

객체 지향을 좋아 했었어서 자신있었고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선택했습니다.

언어는 어떤 언어를 다루었나?

1 학년 1 년은 c, 이후부터 15 년도 까지는 java, 작년에는 c 과 어셈블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덕고덕)

그런데 왜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환경을 접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는 로우 레벨 개발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작년 삼성 SOSCON 행사에 참여하여 아틱 발표 세션을 듣게 되었다.

바로 IoT 단계로 갈수 없으니 브릿지 역학을 하겠다는 삼성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어서 아틱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입사하여 아틱과 같은 좋은 제품, SoC 펌웨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학년 2 학기 때부터 4 학년 2 학기까지 전공 공부, 프로젝트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3 학년 1 년동안은 두 번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준비했었고 두 번다 탈락했습니다. (서류탈, 면접탈)

졸업유예하고

1 월 :

백준알고리즘 현장강의들으면서 삼성 코딩 테스트 공부

2 월 :

백준알고리즘 현장강의들으면서 삼성 코딩 테스트 공부

3 월 :

백준알고리즘 현장강의에서 만난 사람들과 코딩테스트 볼 때 까지 스터디 진행

4 월 :

코딩테스트는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풀자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 80,80 맞는 거 보다 한 문제만 100 정확히 맞히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 문제만 정확히 맞음 )

5 월 :

1 분자기 소개, 마지막 발언,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 정리(기술적 & 외적으로 느낀점?) 위주로 정리함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함.

-----

17 년 상반기

삼성 SDS 소프트웨어직 면접 후기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삼성 SDS 소프트웨어직 면접 후기 입니다.

먼저 오전 7 까지 지하 2 층 면접 대기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25 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기 장소에서 문서 확인과 인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인성 검사를 위해 자리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각 3 명씩조를 이루어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임원 면접 a PT 면접(직무) a 창의 면접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임원 면접 들어가기 전 1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진행 요원 분들께서 긴장감을 풀어 주셨습니다!

임원 면접은 3:1 로 진행 되었고 학업 외에 한 일, 알고리즘과 창의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환원, 평소 친구들이 생각하는 저 등에 대해 물어 보셨습니다.

임원 분들께서 가장 좋게 바라봐 주셨던 점은 저의 밝은 미소와 거짓 없이 진실되게 말하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분위기 속 임원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홍기찬 선생님의 모의 면접 때 표정을 좀 더 밝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웃으며 말하려  
는 노력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PT 면접은 2 문제가 나오고 한 가지를 택해서 50 동안 풀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앱 관련 문제였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주어지지만 면접장 안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장입니다.  
각 문제는 요구 조건이 여러 개 있고 이를 만족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인턴 경험이 있었기에 클라우드 관련 문제를 풀었습니다. 만약,  
클라우드 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판서를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부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보안 관련하여 많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  
다..ㅜ) 하지만, 최대한 답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의 개발에 대한 생각을 말함으로써 대답 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창의 면접은 50 분 정도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문서는 면접관들에게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 지문과 키워드 여러 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2,3 개 이상을 이용하여 지문 관련 이슈를 하나 만들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  
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의 면접에서 창의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기찬 선생님의 창의보단 논리에 집중하여 풀어야 한다는 말을 생각하며 솔루션을 제공하려 노력하  
였는데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관련하여 왜 그렇게 생각했냐.  
타겟은 왜 이렇게 정했냐.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하  
셨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순발력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던 적이 있냐는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행히 합격했네요!!! ㅎㅎㅎ 홍기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물수있는취업필문가=====

17 년 상반기

삼성 sds

창의성 면접 -> 인성면접 -> 직무면접 순으로 봤습니다.

창의성 면접

문제) 석기 시대 사람들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과거보다 잘 살고 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키워드) 개인화, 트렌드, 행복, 가치, 빈부격차 등

위의 문제를 보고 솔루션(제품, 서비스)을 기획하라

-> 저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로 나누고 석기시대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물질이 부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분류의 단점을 갖고오면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자가 물건을 사는 대신 물건 가격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펀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후원자가 돈을 내면 이 물건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컴퓨터로 요약해서 면접관님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문제와 해결방안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합니다.

철판에 적으려고 표 만들었는데 저에게 앉으라고 하시고 발표 하라고 하셔서

일어나서 발표할 생각을 못했습니다ㅠ

요약을 간단하게 해서 잘했다고 칭찬은 받았지만

문제를 2 가지로 분석하고 1 가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써서 조금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1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 면접장에서 생각난 것을 말씀드렸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면접

주로 삼성에 관한 기술이나 자소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인턴 경험에 대해 꼬리 질문하셔서 경험에 대해 준비를 잘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턴했을 때 조직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근 얼마나 했는지, 제일 오래 회사에 남아있었을 때가 몇시인지

삼성에 관한 기술은 다른 지원자도 같은 걸 말씀하셨다고 해서 차별화된 답변을 못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직무면접

문제를 먼저 풀고 한 장에 요약해서 PT 발표를 합니다

창의성 면접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결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검증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 질문 3 가지 정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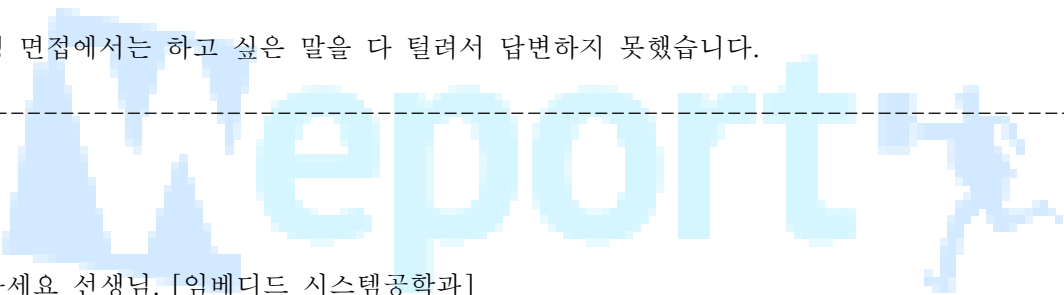
인턴 때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등을 물어봐서 인성면접 때 답변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휴학을 오래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두 문제 중 하나는 아예 모르겠고 하나는 대강 알고 있는 분야라서 우선 쪼개고 제가 아는 만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소개는 1~2 번 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꼭 물어보셨는데

창의성 면접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려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베디드 시스템공학과]

믿을 수 있는 취업전문가

17-05 월

삼성전자 CE/IM 지원.

[인성질문]

- 아침먹었나?
- 몇시에 일어났나?
- 보통 긴장해서 잘 못드시는데 밥은 잘 먹었는지?
- 학점은행제?
- 경영은 왜 했나? 임베디드는?
- 휴학을 했다. 휴학동안 뭐했나?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임베디드는 특정한 플랫폼위에서 개발한다. 순수 소프트웨어보단 제한이 있지 않나?
- 우리는 주로 서버를 한다. 프론트엔드는 별로 하지않는데?
- 가고싶은 부서?
- 회장을 했다. 회장하면서 직접 진행한 일이 있나?
- 프로젝트하면서 힘들었던 것?
- 해커톤, 여기서 진행한 것 얘기해달라
- 멤버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얘기해달라
- 면접 지금까지 몇번 봐봤나?
- 우리가 ~씨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 마지막 할말

#### [직무면접]

- strategy pattern
- 부동산소수점
- 리팩토링

이 세가지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정 시간 선택한 문제를 풀고  
면접에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발표합니다.

#### [창의면접]

빗소리, 바람소리 처럼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래의 키워드 2개이상을 선택하여 글 작성.

선생님께서 컨설팅 당시

제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침착하다고 지금보다 목소리를 한톤 높이고 더 밝게 하라고 말씀해주셨 습니다.

세개의 면접 모두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더 밝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자기소개를 진행했고 그로인해서 1분자기소개를 할때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세계의 면접에서 면접관님 중 한분은 꼭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면접 분위기를 밝게 끝나갔고 압박질문을 주셔도 이미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상태라 크게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곤란한 질문이라도 이미 한번은 생각해봤던 질문들이어서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답변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고, 그때와 달리

제 장점을 제대로 찾았고 세 개의 면접에서 모두 제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였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걱정스러운 요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또 반대로 그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들을 어필했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른 이력들이 제 장점으로 어필될 수 있었습니다.

-----  
-  
17 년 상반기 [정보통신전자공학]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 상반기에 삼성반 33 기 수강했던 라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 도움 많이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ㅎ

그리고 앞으로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간단하게 면접 후기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CE/IM S 직군이구요.  
과거 인턴을 했었다가 최종 전환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면접 별로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 면접>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운 내용, 객체 설계 관련 내용,  
계산 정밀도 관련 내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어느정도 있다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인턴 때 했던 업무와 학부시절 프로젝트(자소서에 적은 내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창의 면접>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키워드들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할 말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전에 면접관님께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느냐를 본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생각해낸 이유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예상되는 꼬리질문을 미리 생각해가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인성 면접>

역시 제가 인턴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가서 답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떨어진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서 대답하면 반드시 꼬리질문이 나오기에

애초에 답변할 때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전문가

면접 후기는 여기까지이구요.

선생님의 친절하고 파워풀한 강의 덕분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삼성 합격인의 밤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 년 상반기 DS S 직군 컴공

○임원

공백기간

왜 ce/im 에서 ds 로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럼 ds 로 지원하면서 한 노력(알고리즘 말고)

대외활동 없는데 학부 때 한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할말

○직무

1. 스택 관련

2. 이진 트리 인덱싱?

3. 객체지향

3 선택하였고 대부분 1 번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3 가지로 구성 되었습니다.

1.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상속 다형성 캡슐화 설명하라.

2.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설명하라.

3. 제시 조건을 참고하여 해당 값이 나오도록 클래스 설계하라.

다른 문제도 비슷한 구성으로 출제 된것 같습니다. 개념 -> 심화 -> 구현?

Pt 에 관한 질문은 안나왔습니다.

객체지향 사용해봤냐

인턴에서 한 프로젝트 자세하게 설명.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주로 쓰는 언어는?

모의면접때 했던 질문을 잘 대답 못하고 어필을 강하게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대답 몇번 하다 보니 임원면접이 끝나버렸네요 ㅠ 그래도 작년에는 아무말도 못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며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17 년 상반기 ds s 직군 전공전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삼성 면접 후기입니다.

먼저 PT

면접은 다른 직무와 다르게 SW 관련 주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풀이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클래스 상속, 시스템소프트웨어 쪽에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서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택했고 대부분 지원자가 알고리즘을 택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제귀구현 문제가 나왔습니다.

면접에 들어가서는 판서 후에 설명을 드려도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총 3 개의 작은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3 개 다풀고 마지막 알고리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원래 알고리즘 스터디를 통해서 알고있던 방법을 설명했더니 PT 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알게되었냐고만 물어봤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프로젝트 경험과 지원동기 부분에서 물어보셔서 준비한대로 대답했는데 생각보다 15 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짧아서 판서 후 발표하고나서 질문 몇개 안받고 바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전문가

그 다음으로 인성면접을 진행했는데 제가 떨어지게 된 이유가 인성면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전에 인성검사를 진행하는데 원래 70 분(?)짜리 인성검사를 25~30 분만에 다 풀어야되서 정말 정신없이 풀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서는 준비한 자기소개 진행하고 질답을 했는데 제가 졸업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공백도 있다보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졸업 후에 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겠냐는 질문에 자신감을 어필하려고 너무 바로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직무적인 경험보다는 인성적으로 역량을 쌓는데 도움이 된 경험이다보니 추천을 하되 직무적인 역량을 쌓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직무열정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갔고 꼬이다보니 답변도 길어지면서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마무리 멘트하고 끝났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창의성 면접은 컴퓨터로 답변을 적고 자기 발표자료는 따로 펜으로 적어가야 합니다.  
면접관분들은 컴퓨터로 전송된 자료를 보시면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기술분야와 접목시켜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에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공통 질문으로 제가 겪은 창의적인 경험을 물어보셨는데 이전에 선생님과 모의면접에서 발표한대로 말했고 꼬리질문도 비슷하게 들어와서 잘 답변했습니다.  
창의성 면접은 제 창의성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 논리성 있게 대답하는데 주력했고 그러다보니 대답이 막힌적은 없었습니다.

나름 오래 준비했는데 잘안되서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은 전형과 또 안되면 다음 하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7 년 상

<계열사, 직군>

삼성전자 DS 부문 소프트웨어직

<학력>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1 회

기타 수상 1 회

인턴(2 주)경험 1 회

<면접>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1. 창의성 면접 (40 분 문제풀이, 15 분 면접)

창의성 면접은 컴퓨터실에서 문제를 주고 컴퓨터에 답을 입력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면접관에게 보여진다고 했고,  
지원자들은 내용을 필기할 수 있도록 종이를 따로 주고요.

종이는 거뒀다가 면접 직전에 줘서, 제가 필기한 종이를 들고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칠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종이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관 세 분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 제가 낸 아이디어가 어떤 면에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을지
- 어떤 방식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구현/운영할 수 있을지 & 운영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예시 상황을 제시해보라
- 생각해 낸 아이디어의 주 고객층은 누가 될 수 있을지

문제에는 저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니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했어야 했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대답하긴 했지만,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라 말로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5분 정도는,  
문제 외에 창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 2. 직무 면접 (45 분 정도 문제풀이, 15 분 면접)

직무 면접은 석사의 경우에도 문제는 학사와 동일하다고 들어서,  
저는 학사 때 배웠던 주요 과목들을 복습하는 식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처음에 지원자들에게 3개의 문제 유형이 적힌 종이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시간을 줬습니다.  
그 뒤 각자 고른 문제 유형에 맞는 세부 문제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풀이 시간을 줬습니다.

세 문제 모두 학부 수업 내용 중에서도 기초적인 내용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문제를 못 푸는 지원자는 없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출되었다고 들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문제를 풀고, 창의성 면접과 마찬가지로 필기한 답변지를 거뒀다가 면접 직전에 줬습니다.

문제가 적힌 종이는 다시 주지 않기 때문에 답변지에 문제도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면접 경험자에게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의자가 없이 칠판만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시키셨고, 바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쉬워서 다 풀기는 했지만, 칠판에 쓰면서 제 답을 설명드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발표 도중에 면접관 한 분이,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으니 발표는 그만 듣고 다른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
- 소프트웨어직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 학부때와 다른 대학의 대학원을 지원한 이유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3. 인성 면접 (25 분 인성검사, 20 분 정도 면접)

원래 50분짜리 인성검사인데,  
이번 채용에서는 25 분에 풀기로 결정됐다고 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래도 25 분 내에 다 못 푼 지원자들을 조금 기다려 주기는 했습니다.

인성 면접에서 받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단한 자기 소개
- 왜 CE/IM 이 아니라 DS 를 지원했는지
- 입사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 만약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 학부 시절 1 년 휴학한 이유
- 학부 시절 진행했던 공모전에 대한 질문
- 석사과정 마친 뒤 1 년 공백기 이유
- 박사과정 진학하지 않은 이유
- 체력이 좋은가? + 평소에 운동 하는지? + 체력 좋다면 증명해봐라
- 삼성전자 이외에 면접본 곳
- 삼성전자랑 다른 기업 붙을 경우 어디 갈 것인지
- 반대로, 다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 인생 좌우명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DS 사업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봐 많이 준비를 했는데, 면접에서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ㅠ

제 경우 다행히도 특별히 까다로운 질문을 안 받아서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단점/약점이나 기업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런 부분은,

솔직한 제 생각보다는 약간 더 기업 입장에서 대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다소 불리할 것 같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구요.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생각을 해 보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정황의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제 경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업관처럼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정해진 질문이라도,  
모범 답안을 외우기보다는

미리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저만의 답변을 생각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에 관한 내용은 서류를 제출한 이후 부터 틈틈이 생각해 보아서 그런지 기업과 관련된 질문보다  
다 준비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별로 자세히 적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 쓰고 나니 분량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삼성 DS S 직군 합격자 입니다.

면접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서 6시에 버스를 타고 화성 16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이 그룹 공채 마지막이라고 들었고 S 직군은 대략 300 명 정도 본것 같습니다.  
총 3 군데의 면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별로 면접순서는 다르지만 저는 임원-직무-창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임원면접은 8  
전체적으로 면접이 15 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시 이전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많이 긴장이 안되더라구요.  
일단은 CBT 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파트 두개에서 각각 25 분씩인데 이번에는 2 개를 25 분만에 다 풀라하네요...  
정말 읽을 틈도 없이 계속 체크해가면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임원면접에서 제가 첫번째 면접자였습니다.  
들어갔더니 간단히 긴장풀기위한 질문으로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리고 자신감있게 하려고 목소리는 크게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분께서 가까이 있으니 다 들린다구 크게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개념치 않고 조금 줄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가능한 크고 자신감있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세분이 계셨고 들어가서 자기소개 끝나고 나니 바로 공백기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자기소개는 거의 신경안쓰시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학시절 휴학관련해서 물어보시구 제가 한번 취업한뒤로 일년넘게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부분도 물어보시더라구요.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말했고 아르바이트 얘기도 했습니다.  
거의 초반 면접에서는 공백기를 바로 파고드시는 듯한 부분이었어요.

가져간 성적표를 많이 보시더라구요. 아마 공백기 확인하려고 하신듯.  
그 이후에는 인성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단점이 뭐냐 친구는 많냐 이런부분은 편하게 넘어갔던거 같습니다.

공백기 관련해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나쁘지 않게 대답드린거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두괄식이 미흡했던것 같은...

임원후에 바로 직무 문제를 풀러 이동했습니다.  
3 문제중 한문제를 택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알고리즘이나 운영체제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소 들었던 난이도보다는 많이 쉬웠던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바로 면접장 들어가서 네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또한 자신감있게 하려고 잘 모르는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도 봤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했으나 문제 풀때 진행자분께서 다른 면접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많이 안풀것 같은걸 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알고리즘을 안풀었는데 그부분도 조금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간단히 했더니 뭔가 면접관분들께서 자기들이 낯인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후 직무는 지원동기같은거라 가고싶은 부서라든지 물어보시구 이유물어보셨습니다.  
이직 사유도 물어보셨구요. 무난히 잘 진행했던거 같습니다.

마지막 창의성은 제가 긴장이 좀 풀렸는지 pc 로 글 쓸때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나서 굉장히 난감  
했습니다. 창의성이라기보단 그냥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을 적은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긴장했고 이또한 자신감있게 하자 하고 그냥 들어가서 풀었던것을  
크게 얘기했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질문할게 딱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완전 미흡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엄청 긴장 풀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발표 후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발표 이후에는 정말 어버버 했어요.

완전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편하게 해주셨고 마지막말로는 자신감있는 모습을 못보여드린것 같아서 죄송하다  
고 다음에 보게 된다면 자신감있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나왔네요.

여튼 전반적으로 임원은 살짝 압박, 직무, 창의는 편했던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그룹공채라 그런지 정말 스피디 하게 진행됐고 빠르게 가신분은 2 시에 가시고 늦  
으신분은 6 시에 가셨네요.

전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면접에서 합격하구 이제 건강검진 기다리고 있습니  
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최종합격 발표 날때까지 좀더 긴장할것 같아요. ㅠㅠ

아무튼 제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17 년 상

이번에 삼성전자 DS S 직군 합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이 정말 큰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면접봤는데 느낌이 좋아서 여기 또한 기대중입니다.

17 년 상반기 삼성전자 DS (S 직군)

양재에서 7 시에 출발하여 화성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는 임원 - 직무 - 창의성 면접순으로 진행했습니다.

## 1. 임원면접

먼저 임원면접 전에 컴퓨터로 인성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1 시간짜리 문제를 30 분안에 풀어야 해서 약간 빠듯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면접관 3 분이 앉아계시고,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자기소개 후 제 성적과 관련된 질문, 휴학과 관련된 질문이 거의 10 분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총 학점은 낮은편이 아니지만 4 학년 2 학기때 약간 낮았는데 이부분에서 뭘 했는지 물어 보셨고,

저는 대학원 준비와 졸업작품등으로 약간 소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접관님이 솔직히 놀지 않았냐고 약간 장난식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솔직한 모습이 좋다는 것이 떠올라 약간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었지만 사실대로 약간 놀았다고 시인하자 웃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살면서 가장 싫었던 적, 회사를 선택할 때 고르는 기준과 같은 질문을 받았고 자기소개서나 지원동기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 2. 직무면접

저는 S 직군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쪽과 관련된 문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 후기에서는 DS 에 소속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관련된 문제도 준비했지만 막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수준은 학부전공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단순한 코딩능력보다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방에서 3 가지 주제중 한가지를 고르면 그 주제의 3 개의 소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주제선택은 5 분이고 문제풀이시간은 45 분입니다.

폰 시험지는 회수하고 면접실에 들어가기 2 분전에 다시 받습니다.

면접실엔 4 분이 계셨고 제가 폰 문제에 대해 판서를 먼저 한 후에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문제풀이가 끝난 후에는 문제에 대한 간략한 질문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제가 식사시절 한 일과 제가 하고싶은 일에대한 질문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임원면접에서 휴학과 성적과 관련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임원면접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과 아이컨택을 놓치지 않고 ~요 라고 쓰는 말버릇을 고친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억양과 톤에 신경을 쓰면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면접을 보니 면접을 보는 시간동안 점점 그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7 년 상 DS 소프트웨어

믿을 수 있는 취업전문가

#### [ 면접 후기 ]

##### 1. 직무면접

- 전공성적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론적인 부분도 강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과목에서 A 가 많은 부분과 현직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

##### 2. 임원면접

- 솔직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부분도 안 좋은 부분도)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될만한 이유를 대야 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사내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충성심,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 3. 창의면접

- 정답이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 가장 분위기가 편한 면접입니다.
- 다소 황당한 답안을 내도 상관없는듯 합니다.

평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사람에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할 때 특히)

### 0. 종합

- 면접관은 날 떨굴 사람이 아니라 날 붙여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분들이 절 합격시켜주기 위해 보고하실때 위에서도 납득할만한 제대로된 이유를 쥐어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현재 삼성전자에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 기사는 다 보고 가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이야기 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